



3면
이명박, 정역 17년
벌금 130억원 확정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음 9월 14일) 제264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김영민 행정안전부장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 시·군·구청장, 시·군·구의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치 · 분권 · 균형 제도적 뒷받침을”

‘지방자치의 날’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축사 지방 4대 협의체장, 재정분권 실현 등 한목소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 4대협의체, 주민대표 등과 함께 하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여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들은 지역특성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창의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치역량을 보여줬고, 중앙정부와의 체계적인 협치와 파트너십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이 경제 재도약과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및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재정분권안은 양극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

방자치 유공자를 비롯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됐지만, 기록으로 보는 전시회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송하진 협의회장은 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장인 김

한중 전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조영훈 서울중구구의회의장 등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조속 통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 및 지방 자치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최근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 성원을 당부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고, 자치권과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올해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도내 시장·군수, 정책공유의 장 마련

현안 선제적 대응 '머리 맞대'

전북도와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29일 도와 시군 정책공유 간담회를 개최,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현안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다.

그동안 도와 시군이 정책협의를 위해 다양한 자리가 있었으나 도내 시장·군수와 도 실국장이 허심탄회하게 상호 소통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민간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하반기 신속집행의 적극 추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열린 순창군의회 월례회의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규탄과 정부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전북대병원장 규탄 공공의대 설립 촉구

전북시군의장협, 순창군의회서 성명 채택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는 29일 열린 순창군의회 월례회의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규탄과 정부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조남천 병원장의 발언은 열악한 지역 의료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고려한 후안무치한 발언”이라고 규탄하며 “이 발언은 의대설립을 염원하는 전북도민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의대설립에 '유보적 입장'이라는 일부 정치권에 더 이상 휘둘러서는 안된다”며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발언에 대해 전북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보건으로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수급 정책”이라며 “고 정부는 당초 안대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코로나 19로 전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 수준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며 “조남천 전북대학교 병원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열악한 의료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여교사 7명 몰카 촬영’ 고교생 ‘퇴학 처분’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고교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다리와 점신사진 등 촬영해 갖고 있다가 친구의 제보로 적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